

정부, 1400조원 가계부채 고삐 조인다

신 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 DSR 도입... 금융권 부채 많을수록 추가 대출 받기 어려워져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 범위적인 대출 압박에 나선다.

특히 주택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 DTI와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DSR을 도입,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신 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

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존 주담대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도 2019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겨 시행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정태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등 주택집단지대출도 정조준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성신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상환능력 심사 시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했다.

이같은 전방위 대출 압박으로 정부 여당은 가계부채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호연장담' 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당정책회의에서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며 "이번 대책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주담대 규제에만 역점을 뒀을 뿐 가계부채는 못 잡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내놓고 있다.

오장근 건국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 특히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은 거의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전체 1400조원 가계부채 중 부동산 담보대출은 560조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은 40%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1000조 정도가 생계형이나, 사업자금 대출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역점을 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 주담대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여기에 종사하던 분들의 신규 생계형 자금 대출이나 사업자금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젊은 사람들의 전월세 공급이 적어지면서 전월세 값이 올라서 전월세 자금 대출도 늘어날다. 이번 대책은 과거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뉴스

카카오 T 출시, 모바일 주차 서비스 시작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를 출시하고 모바일 주차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4일 모바일 택시 호출앱 '카카오택시'의 전면 업데이트 및 리브랜딩을 통해 '카카오 T'를 출시하고, 앞으로 선보일 모든 이동 서비스를 망라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 T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각 앱에서 제공하던 택시 호출(카카오택시), 대리운전 호출(카카오드라이버),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기능을 모두 카카오 T 하나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T를 실행해 화면 상단의 '택시·블랙·드라이버·주차·내비' 탭 중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탭을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자동결제 기능도 도입해 이용 편의를 한층 제고한다.

단 한번의 신용카드 정보 등록만으로 카카오 T의 고급 택시, 대리운전, 주차 서비스 요금을 별도 과정 없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인 '카카오 T 주차'는 모바일로 실시간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검색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윈스톨 주차 서비스다. 지난해 2월 인수한 주차 서비스 스타트업 '파킹스퀘어'의 전문성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바일 경험과 역량을 더했다.

'카카오 T 주차' 이용 방법은 앱을 실행해 주차를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강남역'을 검색하면, 검색 시점을 기준으로 강남역 인근에서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최대 5개까지 추천 받을 수 있다. 추천 기준은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소요 시간, 요금, 주차 방식 선호도 등이다.

추천 받은 주차장의 위치·가격·주차 방식 등 정보를 비교한 후 원하는 주차장과 이용 시간을 선택하면 예약이 완료되며, 예약 정보는 주차장으로 바로 전송된다. 예약 완료 화면에서 '길안내 받기'를 누르면 카카오내비 길안내로 예약한 주차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주차 요금은 카카오 T와 연동한 카오페이로 자동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 T와 차량 번호 인식 설비가 연동된 주차장을 예약하면 자동으로 주차 시간을 확인해 요금이 결제되기 때 문에오프라인 상에서의 입출차 과정이 모두 생략된다.

/뉴스

맥시칸치킨-에이프릴, 광고모델 계약

계약체결 마케팅 활동... 배달앱 '요기요' 이벤트 진행

치킨 프랜차이즈 '맥시칸치킨'이 대세 아이돌 걸그룹 '에이프릴(April)'을 전속 광고모델로 발탁했다.

맥시칸치킨은 허립에서 생산하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닭고기를 100%사용하고 있는 30년 전통의 치킨프랜차이즈 회사로 맛과 영양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신메뉴 개발과 서비스로 전 연령층으로부터 믿고 찾는 치킨브랜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맥시칸치킨의 '순살닭강정'은 SNS 상에서 새로운 이슈제품으로 젊은층으로부터 '닭강정의 진리'라 할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치킨과 밥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치밥'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에 맥시칸치킨은 24일 '에이프릴'과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제품 홍보 및 캠페인 등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으며, 배달 어플 '요기요'와 함께 슈퍼레드위



크 토요일 3천원 가격할인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맥시칸치킨 측은 "에이프릴 멤버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치킨을 좋아하는 마음이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아 모델 발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맥시칸치킨은 분사 차원의 매출 지원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치킨창업 프랜차이즈이다. 또한 최근에는 신규창업 시 가맹비, 교육비 면제와 시설자금(100만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을 통해 상생매케팅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대 창조일자리센터, CAL 초청 기업설명회 개최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24일 일본해의취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산대학교 제2학생회관에서 주식회사 CAL 초청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실질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식회사 CAL의 무쿠노키 부장이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일본 취업시장 및 기업 안내, 구체적인 채용정보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일본어 능동자 및 관련 분야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면접 및 채용까지 연계시키는 채용연계형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목받았다.

20여명의 신청자 중 3명을 선발하여 11월 면접을 진행하고,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가 있을 시 내년 4월부터 정식 근무할 예정이다.

/군산=김광관 기자

금융당국, "대부업체 대출 실태 점검 필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청년층과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들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실태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8조8146억원, 연체금액은 4318억원으로 평균 연체율은 4.9%였다.

이들 대부업체의 연체금액은 2014년 2613억원, 2015년 3090억원에 이어 지난해 385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연체율도 2014년 3.8%, 2015년 4.0%, 지난해 4.6%로 상승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20대와 70대 이상에서 연체를 증가시켰다.

20대 연체금액은 2014년 308억원, 2015년 397억원, 지난해 453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466억원으로 늘었다. 연체율도 2014년 3.9%에서 현재 5.8%로 증가했다.

/뉴스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한달 200만원도 못 번다

농어민·지역일자 10명중 8명꼴 청년·중장년층보다 못버는

임금근로자 중 절반 수준인 한 달 월급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민과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10명중 8명이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977만9000명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비중은 43.0%였다.

100만원을 채 못 버는 근로자도 10.4%에 달했다. 10명중 1명 꼴이다.

200만~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27.3%였고, 300만~4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을 번다는 월급영역은 각각 14.9%, 14.8%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경우 1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44.0%로 가장 높았다. 200만원을 채 못 버는 비중까지 합하면 80.8%에 이른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도 박봉에 시달리고 있었다. 100만원 미만인 비중이 29.3%였고, 100만~200만원 미만은 48.4%나 됐다.

한 달에 400만원 이상 버는 근로자 비율은 1.1%로 전 산업중 가장 낮았다.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변호사, 회계사, 연구·개발자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이었다. 월 400만원 이상 받는 비중이 각각 35.0%, 34.6%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버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9.2%로 월등히 높았다. 30~49세는 4.5%, 50세 이상은 6.7%에 그쳤다.

한편 올해 상반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내 시 지역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서귀포시였다. 충남 당진시, 전남 나주시, 제주 제주시, 경북 영천시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시의 산업·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비중이 시 지역 평균인 7.1%보다 높게 나타났다. 5개 시 모두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은 시 지역평균(20.8%)보다 낮았다.

/뉴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